

## 성공에 이르는 비결, 한번에 하나의 관계를 맺으라.

english

원제 《절대 혼자 밥 먹지 마라! *Never Eat Alone*》  
 저자 Keith Ferrazzi  
 출판사 Doubleday & Company, Incorporated

안기순 | 번역가

저자인 Keith Ferrazzi는 Deloitte Consulting사의 역대 최연소 경영자이자 컨설팅 회사인 Ferrazzi Greelight의 설립자다. 그는 젊은 시절, 자신의 누추한 동네 근처에 위치한 부유한 지역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는 동안 부유한 사람들의 습성을 연구할 기회를 가졌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성공이 성공을 낳고, 부가 부를 낳는다는 것이었다. 비슷한 계층의 사람끼리 인맥을 형성하고 서로 직업을 찾아주고, 서로의 아이디어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자녀에게 최고의 교육을 시킨 후에 최상의 직장에서 견습을 받게 하고 급기야는 훌륭한 직업을 갖도록 만들었다. 인생의 목적을 성취하려면 상당한 내재적 능력을 타고 났다는 것보다는 얼마나 소유한 상태에서 삶을 시작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기에 이르렀다.

결론이 여기까지라면 가진 것이 별로 없는 평범한 현대인에겐 무기력감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저자는 이 한계상황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바로 네트워킹이었다. 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구축하고 증진하는 기술과 전략이, 가진 사람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에게 결여되어 있다는 자각을 하게 되었고, 그 길이 자신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했다.

이런 자각 끝에 저자는 특유의 네트워킹 기술을 구축했고, 그 결과 작은 도시의 강철공 아버지와 청소부 어머니 밑에서 성장했지만, 30대에 이미 워싱턴 정가에서 할리우드의 정상급 배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네트워킹을 구축할 수 있었다. 또한 크레인이 선정한 40세 미만 인물 40인에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에서 미래의 세계지도자로 선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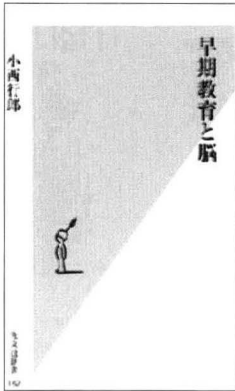
저자의 네트워킹 비결은 다분히 '관대함'에 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삶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다가갈 때 자신의 삶에도 같은 변화가 왔다고 증언한다. 그는 네트워킹을 자신의 지

식과 자원, 시간과 에너지, 친구와 사업동료, 연민과 공감을 나누고 연결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가치를 제공하고 동시에 자신의 가치 또한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았다. 진정한 네트워킹은 다른 사람을 성공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도 정의한다. 이런 원칙을 지켜나갔을 때 자신이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궁극적으로 성취할 수 있었다는 고백도 책에 실었다.

저자는 진정한 관계구축은, 통상 인식하듯이 밝게 웃으며 악수를 나누고 명함을 주고받는 것과는 다르다면서 사람에게 다가가는 자신의 구체적인 네트워킹 기법을 31개의 간결한 장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쌀쌀맞은 상대편 전화를 따뜻하게 받는 방법, 수위를 다루는 방법, 회의 전문가가 되는 방법, 사후관리, 잡담하는 방법, 지속적인 인맥관리, 머릿속으로 주관할 두지 말기, 식사 혼자 하지 말기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언을 싣고 있다.

또한 캐서린 그라함에서 빌 클린턴, 버논 조단, 달라이 라마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인물들의 시간을 초월한 네트워킹 전략을 소개한다.

어떤 일에 종사하든 마지막으로 부딪치게 되는 것은 사람이다. 사업 또한 사람에 의해서 고안되고, 실행되고, 마무리되는 일이다. 사업목표를 달성하는 일도 알고 보면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는 일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자신에게 가장 큰 자산은 자신의 네트워크인 셈이다. 하지만 문제는 네트워크의 실질적인 구축 방법을 배울 만한 곳이 없다는 점이다. 그런 방법을 찾고 있는 독자라면 이 책이 도움이 될 것이다. **◆◆**



## 뇌 성장에 필요한 모든 자극 평범한 육아 속에서 찾아라!

제목 《조기교육과 뇌》  
저자 고니시유쿠오  
출판사 고분사

japanese

김지효 | 번역가

‘아이를 영재로 키우려면 이렇게 하라. 영재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똑소리나게 남보다 공부 잘 하는 아이로 키우겠다’. 부모라면 한번쯤 기거울어봤음직한 테마이고, 또 부러웠음직한 욕심이다. 이는 작금의 과열된 조기교육 열풍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그런데 조기교육 열풍에서 뿔레야 뿔 수 없는 것이 있으니 바로 임계기이다. 인간발달에 있어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임계기는 언제부터인가 교육적 효과가 높은 시기라는 좁은 울타리 속에 갇히고 말았다. 그 결과 부모들은 임계기의 정확한 개념조차 세우지 못한 채 아이 머리 속에 하나라도 더 집어넣겠다고 조바심을 낸다. 뇌가 아직 말랑말랑한 8살 이전이 학습효과가 가장 좋으니 이때를 놓치지 말자는 게 그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인간의 뇌는 유아기에 미래까지 다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년기·청소년기를 거치면서 더욱 성장하고, 성인기와 노년기에도 유연하게 변화하면서 학습을 계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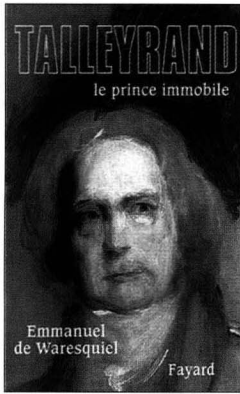
요즈음의 조기교육은 아이의 발달을 오직 뇌차원에서만 보려는 경향이 짙다. 그러다보니 공부 잘 하느냐, 못 하느냐로 아이를 판단하게 돼 결과적으로 아이에게서 아이다운 면을 빼앗아버리는 사태까지 발생한다. 이 책은 아이에 대한 부모의 지나친 기대에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부모와 같은 정도의 수준이면 된 것 아니냐’고. 발전, 전진, 성장이란 단어의 힘을 굳게 믿고 있는 현대사회에 대한 경종이 아닐 수 없다.

이 책은 전체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1장의 ‘조기교육과 뇌’에서는 유아의 임계기 감증을 통해 영어나 수학 같은 조기교육이 필요한지를 생각한다. 조기교육의 미래적 효과와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속시원히 밝혀진 게 아무 것도 없다. 인간의 능력을 국소적으로 유출하는 학습방법은 아이의 자발적인 능력과 의욕을 꺾어놓을 수 있음은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아이

의 건강마저 해칠 우려가 크다. 2장의 ‘유아와 영어교육’에서는 조기교육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는 영어교육의 현주소와 교육적 효과를 살펴보았다. 3장과 4장에서는 어머니만이 육아를 책임지는 상황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면서 행복한 육아 실현을 위한 사회전체 차원에서의 정책을 제안했다. 마지막 5장에서는 장애아교육 관점에서 육아를 생각하고 있다. 조기교육이 장애아의 조기발견, 조기치료와 공통된 데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장애아교육은 이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힘든 훈련과 치료만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누누이 강조하면서, 그들에게 이런 사실을 믿고 따라줄 것을 요구했다. 그 결과 많은 부모와 아이가 미래의 희망 속에서도 고통스런 시간을 보내야 했는데, 이렇게 인간을 우열로 판단하는 가치관이나 아이의 발달과정 앞에서 어떤 철학과 자세로 있어야 하는지를 생각했다.

무조건 조기교육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자료를 인용하고, 또 연구결과와 경험을 들어가면서 조기교육의 현실과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내 책이 주는 메시지가 더욱 설득력 있다. 부모로서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조기교육의 목적이 오로지 남을 앞서가기 위한 것이라면 처음으로 되돌아가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해 볼 일이다.

‘이렇게 하라! 이러면 안 된다!’로 일관하는 책이 흥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느긋하고도 진중한 맛을 느끼게 해주는 책이다. **김지효**



## 권력과 줄타기의 달인, 탈레랑

french

제목 《탈레랑: 부동의 1인자 Talleyrand le prince immobile》

저자 엠마누엘 드 바레스키엘 Emmanuel de Waresquiel

출판사 파이아르 Fayard

조정훈 | 번역가

역사는 인물을 영웅과 반영웅의 이중 구도로 나누어 설명하길 좋아한다. 그것이 역사에서 교훈을 끌어내는 가장 좋은 수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사 속 등장인물 중에는 이런 단순한 구도에 좀처럼 걸려들지 않는 인물들이 있다. 그가 왜 그 길을 택했는지, 그가 한 행동이 역사적으로 좋은 선택이었는지, 좀처럼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다. 그런 인물 중의 하나로 프랑스의 정치가 탈레랑이 있다. 탈레랑은 프랑스혁명, 나폴레옹 집권기, 왕정복고, 루이 18세 정권, 루이필립 정권, 7월혁명 등 무려 9번 정권이 바뀌는 동안 그때마다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며 한번도 권력의 끈을 놓치지 않은 불가사의한 인물이다.

탈레랑은 대대로 군인을 지낸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 말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다리를 다친 그는 성직자의 길을 걸어 주교의 자리에까지 올랐다. 하지만 그는 프랑스혁명이 일어나자 혁명정부에 가담했고 교회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법률안을 통과시켜 몸담았던 성직사회를 배신했다. 공포정치를 피해 잠시 미국으로 망명했던 그는 다시 프랑스로 돌아와 총재정부의 외무장관 자리에까지 오른다. 하지만 여기에서 탈레랑은 또 다른 배신의 파트너를 찾아내는데 그가 바로 나폴레옹이었다. 나폴레옹의 재능과 야심을 일찌감치 간파한 그는 쿠데타에 가담하여 자신이 총재정부를 타도하는 데 앞장선다. 하지만 1806년 대륙봉쇄로 나폴레옹이 궁지에 몰리자 그는 황제에게서도 등을 돌린다. 러시아 침공이 나폴레옹의 몰락을 재촉할 것이라 예감한 그는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르 1세에게 끝까지 저항하라 촉구하여 나폴레옹의 몰락을 재촉한다.

나폴레옹이 실각한 뒤 탈레랑은 프랑스의 외교 대표로 빈 회의에 참여한다. 여기서 그의 책략가로서의 재능이 유감없이 발휘된다. 협상국들에 대한 이간질과 교묘한 막후 접촉으로 사실상

패전국이었던 프랑스가 조금도 손해를 보지 않도록 협약을 이끌어 낸 것이다. 그 후로도 탈레랑은 루이18세를 왕으로 옹립하여 '왕정복고시대'를 열었고 7월혁명 이후엔 고령의 몸으로 영국 대사로 활약하는 등 변신을 거듭한다.

탈레랑은 무척 탐욕스러워서, 뇌물을 받쳤고 뇌물로 큰 재산을 모았다. 사제 출신이면서도 세속적인 향락에 빠져 여자와의 스캔들에 휘말리곤 했으며, 사교계의 여성들을 통해 정치적 비밀들을 캐내는 등 애정관계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빈 회의에서 그의 정적이었던 메테르니히조차 "탈레랑 씨에게서는 그의 도덕과 정치를 분리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그의 정치적 능력은 탁월했다.

그의 성격을 단적으로 말해 주는 또 한 편의 에피소드가 있다. 저녁식사 때 거리에서 다투는 소리를 우연히 들은 탈레랑이 식탁의 동료들에게 말했다.

“이봐, 알지? 우리 편이 이기고 있어!”

“어느 편이야?”

동료들의 질문에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그건 내일이면 알게 되겠지.”

우리나라에는 소개된 바 없지만 탈레랑에 대한 평전, 어록, 처세서 등은 프랑스에 여러 권이 나와 있다. 그 중 역사학자 엠마누엘 드 바레스키엘 Emmanuel de Waresquiel이 최근에 낸 《탈레랑: 부동의 일인자》는 역사자료와 정치, 외교 문서, 어록 등 방대한 자료를 망라한 탈레랑 평전의 종합편이라 할 수 있다. 일방적인 찬사와 왜곡된 신화로 점철된 역사 속 영웅의 이야기보다 단점과 강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이런 인물의 인생 역정이 가치관 혼란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더 큰 교훈을 줄지도 모르겠다. ☞

## 20권의 책, 독일 인문학의 저력 상징하는 ‘기간산업’

german

원제 <킨들러 문학백과사전 Kindlers Neues Literaturlexikon> (전20권)

저자 발터 옌스 Walter Jens

출판사 Kindler Verlag GmbH



김재혁 | 시인, 번역문학가, 고려대 독문학과 교수

한 나라 경제의 튼튼한 하체를 이루어 그 나라의 부강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기간산업이다. 지반이 약하면 안정성이 없고, 외부에서 부는 웬만한 바람에도 금세 흔들리기 마련이다. 인문학에서 대표적인 기간산업이라고 하면 사전편찬이라고 할 수 있다. 훌륭한 사전을 만드는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독일에서는 그림 형제의 사전이 완성되기까지 100년이 훨씬 넘는 세월이 걸렸다. 문자 <A>에서 시작한 그들 형제의 작업은 <Furcht>에서 끝났고 그 뒤를 후세의 학자들이 이어받아 심지어 2차대전을 겪은 뒤 독일이 두 쪽으로 분할된 뒤에도 서독과 동독에서 사전편찬 일은 계속 이어져 마침내 1960년에야 마무리되었다. 이와 비슷한 생각에서 시인 릴케는 예술가의 행위를 성당을 짓는 일에 비유하였는지도 모른다. 사전을 편찬하는 일이나 예술을 추구하는 일이나 무한정한 인내와 열정이 제일 가는 덕목이다.

독일문학을 전공하는 필자의 입장에서 가장 많은 부러움을 느끼는 것이 독일인들이 이룩해 놓은 방대한 사전편찬 작업이다. 브룩하우스 백과사전, 역사-철학 사전, 문학 백과사전 등 수많은 사전류가 그들의 학문적 성과의 커다란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 기간산업의 튼튼한 토대 위에서 그들의 학문은 흔들림 없는 전통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일제시대인 1930년대 말 독일어를 우리말로 옮기려고 애쓴 박용철을 생각하게 된다. 그는 당시 독일어-한국어 사전이 없던 상태에서 번역을 해야 했다. 그런 까닭에 독일사전이나 독화사전을 뒤적거려야 했고 이것을 다시 우리말로 옮겨야 했다. 그가 겪었을 고통은 능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만약에 당시에 정확하고 꼼꼼하게 만들어진 독한사전이 있었다면 그의 업적은 그의 타고난 우리말 실력에 더하여 훨씬 더 훌륭하게 남

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외국어 사전을 만들 때의 번역의 중요성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사전번역에서의 실수는 다른 책에서의 엄청난 오류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경제가 죽었다고 할 때 정부에서는 기간산업을 살려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문학이 죽었다고 생각한다면 인문학의 기간산업인 사전편찬 사업에 더욱 진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에 자리를 잡지 못한 수많은 인문학 전공 박사들을 활용하는 것은 학문 후속 세대의 육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인문학이 바로 설 때 사회의 정신이 건강해지고 그 구성원들 또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음은 당연한 일이다.

여기에 소개하는 《킨들러 문학백과사전 Kindlers Neues Literaturlexikon》(전20권)은 세계의 모든 고전적인 문학작품을 작가별로 빠짐없이 기록하고 소상한 내용소개 및 흥미 있는 해석과 더불어 관련된 문헌까지 밝히며, 그 작품의 번역본까지 소개해 놓고 있어 문학을 전공하는 사람이라면 꼭 갖추어야 할 필수 서적이다. 게다가 최근에 출간된 이 판은 1992년에 완결된 이 책의 보급판으로서 가격 면에서도 장점을 지닌다. 이 책에 적힌 내용들의 정확성은 이 책을 이용한 다른 문학평론의 신뢰성을 보장해 준다. 우리도 어서 이런 책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